함평 5일시장이 살아난다

공연장·화장실 등 시설 현대화
상인 '실명제'·가격 표시제 효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산뜻하게 단장된 함평 5일시장

함평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대형마트 개장으로 한때 움츠려 들었던 함평 5일시장이 최근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매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함평군과 함평 5일시장 상인회는 지난해부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장옥 68동과 공연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또 최근엔 장옥 8동을 추가 신축해 어물전을 입주시키는 등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했으며, 무질서하게 늘어선 노점상들을 일정 구간에 집중 배치했다.

상인회는 특히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가슴에 붙이는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군과 상인회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기업체 임직원들이 '선물·제수용품 관내에서 구입하기'운동이 펼쳐지면서 지난 설 명절에는 무려 5만여 명이 함평 5일장을 이용하는 등 재래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함평군 기업경제과 김영학 과장은 "군과 상인회가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재래시장을 모범적으로 되살려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 우시장 또한 5일장이 열릴때마다 육질이 좋은 80여 두의 한우가 거래되고 있어 전남 타지역 우시장에 비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국도 27호선→고흥읍 진입도로 비좁고 굴곡 심해

교통체증·사고위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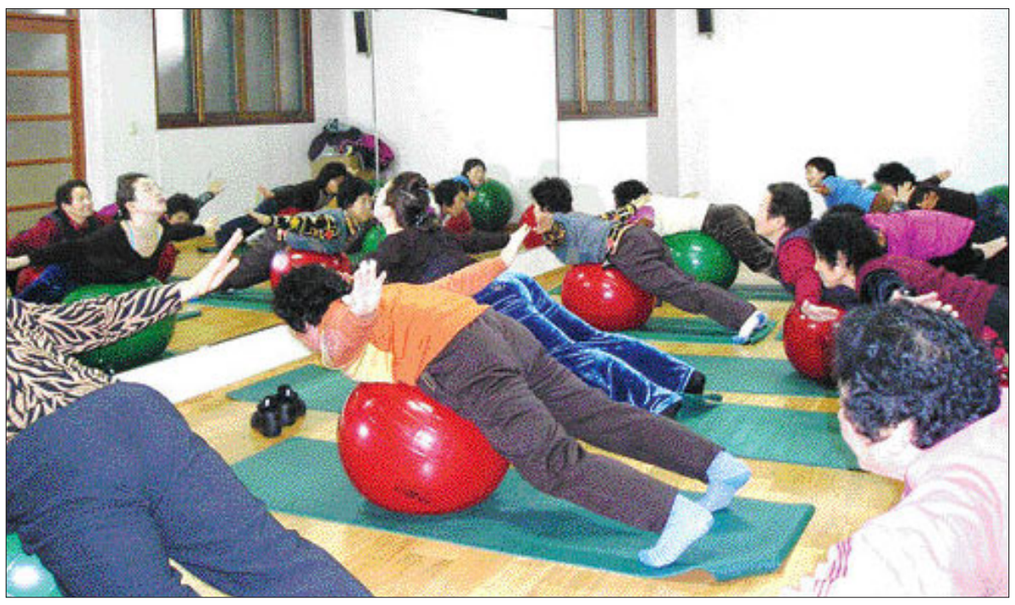
벌교~고흥 간 국도 27호선에서 고흥읍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기존 국도의 협소한 경사 지점과 연결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흥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도 2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읍 진입도로가 기존 국도의 경사진 지점과 연결된데다 좌회전을 받아야 읍 소재지에 도달할 수 있어 상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대규모 행사 등 교통량 증가 요인 발생시 국도 27호까지 차량이 적체되기 일쑤여서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송모(40·고흥읍)씨는 "2004년부터 줄곧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진입도로부터 정체되다 보면 고향을 찾은 즐거운 마음마저 사라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항공 관련 방문객 증가 등에 대비해 새로운 진입도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존 진입로에서 상행 500m지점에 새 도로를 개설해야 운전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건강체조 배우는 장수마을 노인들 담양읍 삼다리 내다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건강 체조를 배우고 있다. 지난 2005년 담양지역 최초의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된 내다마을은 최근 마을회관 내에 찜질방과 체력단련실 등 건강 편익시설을 설치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나주시, 송일국에 명예시민증 주려다 망신

협의 없이 추진… 본인 난색

나주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기 연예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려다 망신만 당했다.

나주시는 27일 "인기 드라마 '주몽'의 주인공 송일국(사진)과 한혜진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했던 안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말로 예정된 시의회 일정에 쫓겨 송씨와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못한데다 송씨가 명예 시민증을 받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어 위촉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이미 서울시와 통영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돼 있는데다 잦은 행사 초청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나주시의 추가 위촉에 난색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송씨의 명예시민증 위촉이 불발로 끝나자 함께 줄 계획이었던 한씨와 연출자 이주환 프로듀서까지 모두 수여 않기로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10개 외국어 골라 배워요

광산 평동초교 전교생 참여
내달부터 '방과후 학교' 운영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평동초등학교가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를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사진)'를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는 지난 1월 개교한 평동 새날학교(국제결혼자녀 및 새터민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원어민 교사의 도움을 받아 무상으로 진행된다. 방과후 학교에는 평동초교 전교생 125명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10개 국어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언어에 따라 10개 반으로 나뉘어져 다음달부터 주당 2시간씩 집중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김순철 교장은 "대다수 학생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방과후 학교에 외국어반을 개설했다"며 "외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곡성 기차마을·심청 개안수술

감사원 모범사례책자에 실려

감사원이 최근 펴낸 공직사회 모범선행사례 모음책자에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곡성 기차마을과 심청 개안수술사업이 수록됐다.

120페이지 분량의 '희망주는 사람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는 모범기관 업무개선 부문에 곡성군 관광사업단의 '폐선철도로 조성한 추억의 기차마을', 성실근무 부문에 '모두가 나의 부모- 심청이 된 지자체 곡성군' 등 2건이 실렸다. 〈사진〉

이 책자에는 곡성군이 옛 곡성역과 압록역을 잇는 13.2㎞의 폐선 기찻길을 활용, '섬진강 기차마을'을 조성해 대표 관광 상품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기차마을은 지난 해에는 7억4천여만원의 운영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6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차마을은 전국 1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에서 국가지정 우수계획마을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전국 특구박람회에서 최우수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곡성군이 '공양미 300석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무료 개안수술 사업 등 노인복지에 앞장선 내용도 실려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01년부터 심청축제 기간동안 쌀을 모아 저소득 층 노인들에게 백내장 등 개안 수술을 벌여 지금까지 800여명이 밝은 빛을 되찾았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새 얼 굴

"주민에 신뢰받는 법원 만들터"

김 학 준 장흥지원장

"주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학준(40)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 고향인 김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95년 서울 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줄곧 수도권에서 근무해왔으며, 이번에 농촌 지역 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으로는 김지언씨와 1남1녀, 취미는 등산. /장흥=김용기기자 kykim@